



중견련, 중견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팔 걷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역 중견기업 추가 육성 지원에 나섰다. 중견련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가운데)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기보-산기평, 기술혁신기업 성장 지원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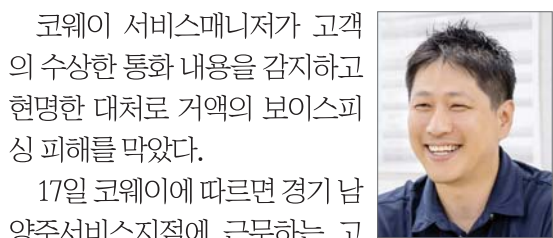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기업 성장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과 '산업기술 R&D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중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전윤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교촌에프앤비, 3회 촌스러버 대회... 공주시 치킨 나눔

교촌에프앤비는 공유가치창출 프로젝트 '제3회 촌스러버 선발대회'를 통해 선정된 '촌스러버'와 함께 지난 8일 충남 공주시 금학초등학교에서 치킨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촌스러버 선발대회' 사연의 주인공은 충남 공주 금학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조리사의 며느리로, 30년간 학교 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조리사 시어머니의 은퇴식을 기념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로 진행했다. /교촌에프앤비

고창호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고객 보이스포싱 피해 예방



코웨이 서비스매니저가 고객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감지하고 현명한 대처로 거액의 보이스포싱 피해를 막았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서비스지점에 근무하는 고창호 서비스매니저(사진)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비데 설치 업무 중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고객 통화 내용에서 "사는 곳이 어디냐", "전화를 끊지 말고 외출 준비를 한 뒤 다시 전화를 받아라"는 말에 보이스포싱 범죄임을 직감했다.

고 서비스매니저는 통장과 도장을 챙겨 급하게 외출하려는 고객을 침착하게 안심시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줌으로써 보이스포싱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해당 사연은 고 서비스매니저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명받은 피해 고객의 아들이 회사 고객센터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고창호 코웨이 서비스매니저는 "연신 고맙다고 하시며 배웅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앞으로도 작은 관심을 기울여 고객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차그룹, 모로코·리비아에 110만弗 구호성금 '쾌척'

글로벌 재난 피해극복 앞장 피해차량 무상점검 활동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진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50만달러)와 리비아(60만달러)에 총 110만 달러 규모의 구호성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4개 계열사(현대차, 기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전달돼 현지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 지원과는 별도로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는 모로코 현지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원형사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판매대리점과 협력해 학교 용품 운송, 심리 치료사 이동, 헌혈, 정부 주도 구호 펀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차량 부품 할인 및 무상 점검 특별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기아 아중동권역본부 또한 판매대리점과 협력해 NGO 단체에 차량을

무상 대여하고 모로코 정부 기관에 엠블런스 개조 차량을 기부하는 등 현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비아에서는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가 피해 차량 부품 할인 및 무상 점검 특별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현대차 판매대리점이 트럭 30대

분량의 식량, 담요, 의약품 등 긴급 구호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아 아중동권역본부는 차량 특별 정비 서비스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아 판매대리점은 식수,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하고 임시 보호소 마련 등 구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와 리비아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빠른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23년 튀르키예 강진, 2022년 미국 허리케인 이언, 2018년 인도네시아 강진·쓰나미 등 해외 대규모 재해에 성금 및 생필품을 지원해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노사, ESG 실천 맞손... "지속가능한 기업 함께"

ESG 실천 노사 상생 선언식 개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업 공동 노력

롯데케미칼 노사가 ESG 실천과 노사 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롯데케미칼은 14일 오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ESG 실천을 위한 노사 상생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 대산, 울산사업장의 노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부회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여수·대산·울산 사업장 노조위원장과 총괄 공장장이 모였다.

롯데케미칼 측은 "이날 롯데케미



(왼쪽에서 첫번째)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부회장, (오른쪽에서 첫번째)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를 비롯해 사업장별 노조위원장 및 총괄공장장이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칼 노사는 창조적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모두가 행복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이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롯데케미칼 노사는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각 사업

장의 미래 변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탄소중립 및 에코 경영을 실천하고, 순환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친환경 미래 사업 선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회사 측은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 등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사가 함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황진구 대표는 "속도감 있는 친환경 미래 신사업 확대와 탄소중립성장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간의 협력 확대와 ESG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롯데케미칼은 사업경쟁력 강화와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현 부회장은 "이번 노사 상생 선언으로 하나된 노와사가 회사발전의 추진체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화학군 계열사 전반에 노사 협력 문화의 긍정적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SKT "전주-반려견 마음으로 AI 활용"

'시고르자브 보건소' 영상 선봬 반려견 주인공으로 AI 철학 소개

SK텔레콤이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세상을 향한 AI(인공지능) 철학을 알리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SKT는 디지털캠페인 영상 '시고르자브 보건소'를 유튜브에서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시고르자브 보건소'는 믹스견을 재미있게 표현한 애칭 '시고르자브 종'에서 따온 제목으로, SK텔레콤의 AI 기술로 귀엽고 순수한 견공들의 건강을 지키고 동물을 사랑하는 견주들의 마음과 공감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됐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농촌 마을에 있는 수의사와 그를 보조하는 AI가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반려견을 도우며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았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할머니, 아픈 반려견을 안고 늦은 밤 한걸음에 보건소로 달려온 아



SK텔레콤 디지털캠페인 영상 '시고르자브 보건소' /SKT

저씨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동물 의료 AI 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의인화해 일상 속에 함께하는 SKT의 AI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AI기반 수의영상진단 보조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출시,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SKT의 앞선 AI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의료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 선진화 등 동물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인터, 부산엑스포 응원전 펼쳐

유치기원 길거리 탁구대회 개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길거리탁구대회를 개최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6일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광장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길거리 탁구대회'를 개최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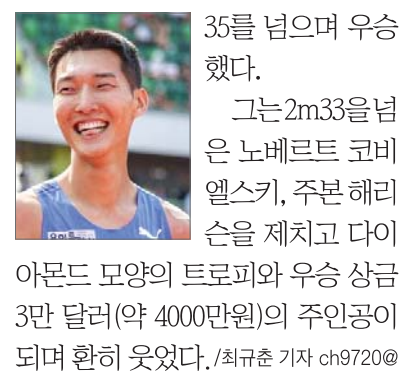
17일 밝혔다. 행사는 일반 시민 대표 30명과 김나영 선수를 비롯해 김별님, 김예림, 유시우 등 스피너스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길거리탁구대회 외에도 전문MC의 진행과 함께 방문인증, 퓌렛, 스탬프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마련해 현장의 재미와 열기를 더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우상혁,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

'스마일 점퍼' 우상혁(사진)이다 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정상에 오르며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작성했다.

우상혁은 1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개인 실외 최고 기록인 2m



35를 넘으며 우승했다. 그는 2m33을 넘은 노베르트 코비엘스키, 주본 해리슨을 제치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트로피와 우승 상금 3만 달러(약 4000만원)의 주인공이 되며 환히 웃었다. /최규춘 기자 ch9720@